

知성과 霸氣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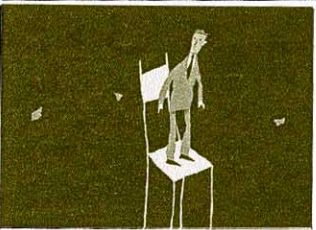
4 특별초대석/이한빈 박사
청년은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자극받기를 원한다/최영목

스승의 그림자/김철수

14 한국 물리학의 수준을 세계에 떨치시던 분/김제완



16 움직이는 대학
응원 문화-꽃인가, 패기인가



23 특집/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㉓-코퍼레이션, 코디네이션
지도층의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박홍수
엄검장무새의 제 노릇/최래옥
지금은 교향곡 연주에 동참할 때이다/백운화
코디네이션을 해치는 편가르기 삼리/이훈구

뿔아보는 현대사

40 노령 지역 독립 운동 세력의 흥망/이균영

달라지는 세상

46 포스트 모더니즘은 신보수주의인가?/배병삼

사진이 주는 생각

51 육상수

짧은 글 깊은 생각

52 우연과 인연과업, 그리고 용기/강신평

풍수지리로 본 통일공간의 문제

56 땅에 대한 효성을 회복하라/최창조

잡지 「지성과 패기」

1993년 5,6월호(통권16호) • 1993년 5월 27일 발행 • 격월간(비매품) • 1990년 9월 18일 등록(마-1646)

발행인/손길승 • 편집인/최시호 • 발행처/선경그룹

• 「지성과 패기」는 환경 보호 운동에 동참코자 표지에 비닐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랩의 언어사회학적 분석

60 여전히 낮은 랩의 정서, 그 미래/이병혁

통계물리학으로 따져본 개혁의 의미

64 '임을 위한 행진곡'에 발맞출 필요는 없다?/권오대

한 예술가의 초상

68 '사진의 아버지' 스티글리츠/박명옥

과학 속에 숨은 이야기(4)

74 지구는 역시 돌고 있었다/이필렬



78 한국의 섬/추자군도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고 자신을 되찾는 부활의 섬/이창기

캠퍼스 패션사/1990년대

88 캠퍼스를 가니는 그들을 어디선가 본 듯하다/유석춘



92 나의 꿈 나의 삶/문상준

그대들이여, 이제 농촌으로 돌아오라!/이대길

정보통신으로 본 한국 역사(7)

100 봉화, 안타까운 통신 문화의 뿌리/진용욱

세계의 대학/토론토대학교

106 150년 된 캐나다의 자존심/김광태

캠퍼스 토론

111 총학생회는 지금 달라지는가?

하이테크의 물결

119 해양에너지 개발 이용의 현황/이달수

나의 대학 시절

123 '강진너 집'에 문헌 광택/최수철

이 책만큼은

127 김용준 교수가 뽑은 대학생 필독서 10권

한민족 건강 관리법

132 가장 흔한 것이 가장 귀하다/안동환

동아리 탐방/한·일학생포럼

136 세계를 향한, 가법지 않은 도전/박은경

—1990년대

캠퍼스를 거니는 그들을 어디선가 본 듯하다

유석춘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내**가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86년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이곳을 드나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두 지점이 있다. 다음아닌 신촌 네거리와 교문이다. 그런데 80년대 후반 그 두 지점에는 완전 무장을 한 전투 경찰이 한켠에 그리고 날렵한 복장의 사복 경찰들이 다른 한켠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날들이 무척 많았다. 마치 복장 검사를 하는 고등학교의 선도부처럼 이들은 학생들의 옷차림을 통해 운동권과 비운동권을 식별하였다. 이들은 정장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남학생들과 청바지에 티셔츠, 운동화 차림의 이른바 '운동권' 처럼 보이는 여학생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다른 학교 학생이거나 신분이 석연치 않은 경우에는 여지없이 연행하거나 학교 출입을 통제하였다. 알고



보니 그러한 날들은 연세대학교에서 연합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정보를 경찰이 사전에 입수하여 이곳에 모이는 '투사'들을 원천 봉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제6공화국 1기 정권의 유희 국면을 거쳤고 마침내는 본격적인 문민 시대의 출발을 구호로 내세운 2기 정권이 시작된 이때, 나는 신촌 거리에 포진해 있는 경찰들을 또 다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의 경찰들은 무장하지도 않았으며 예전처럼 시위 가담자로 추정되는 대학생들을 연행하지도 않는다. 밤이면 신촌 거리를 지키는 요사이 경찰들의 임무란 바로 얼마 전부터 대학가 문화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락 카페'에 드나드는 미성년자를 걸러내고 그 안에서 춤추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란다. 요란한 댄스 음악을 듣는 것은 적법하고 그에 맞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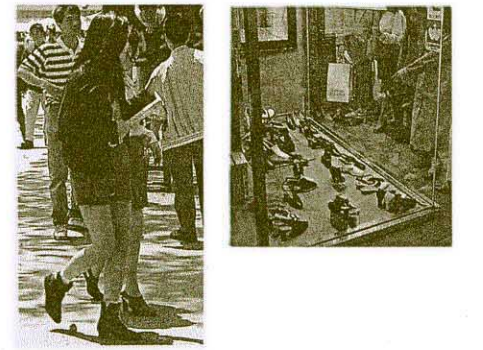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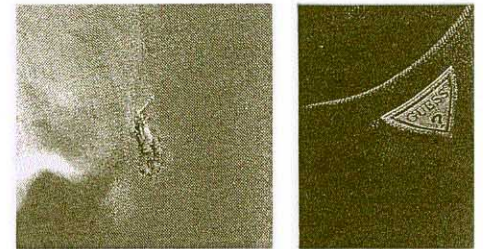
몸을 흔드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식의, 국가가 시민 사회에 개입하는 방식의 '여전함'을 논외로 한다면 이것은 80년대와 90년대 대학생의 이미지 변화를 상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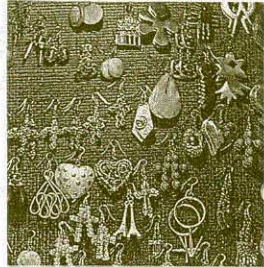
80년대의 '딴진 이념'으로 무장한 사회 변혁의 중추'로서의 대학생의 이미지는 90년대에 와서 '일반인들이 우려할 만한'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의 주인공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90년대 들어서 신촌의 대학가와 압구정동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락 카페 문화는 젊은이들의 저항 의식이 민중적 · 민족적 양식으로 표출되었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대학내에서의 민중 · 민족 문화가 상대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그들의 의식이 외래 문화를 통해 그 분출구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놀이 문화의 양태와 성격이 변화된 것은 이전의 대학 문화가 '정치적 해방'의 구호 아래 문화를 정치의 하위 체계로 놓아둠으로써 어떤 측면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욕구를 한 가지 양식으로만 표출하도록 강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해방의 구호가 뚜렷한 대책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90년대에 와서 대학 문화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개성과 욕구의 표출을 위해 기성 문화뿐 아니라 기존의 대학 문화와도 한 판의 씨름을 벌이려 하고 있다. '패션은 동의와 혁명에 관한 정치적 담론의 한 편린'이라는 스튜어트와 엘리자베스 유웬의 말이 대변하듯이 대학생들의 옷차림은 그들의 변화된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간과할 수 없는 표상이다. 대학 문화가 그 사회내의 주류 문화와 다른 독특함이 있어 따로 분류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대학생들의 옷차림 또한 기성 문화의 권위와 획일성, 역할에 따른 고정화된 이미지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담고 있다. 80년대와 구분되는 90년대의 대학 패션, 그것은 대략 대담성과 간편성, 남성들의 패션 지향, 그리고 전통 문화에 대한 집착에서의 탈피와 소비 문화에로의 편입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그들의 패션은 대담하다.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복고풍의 바지의 경우 무릎까지 몸에 꼭 달라붙어 움푹달작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인다. 아직까지는 더위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기온은 아닌지라 그 대담성의 극단적인 표현을 감지할 수는 없지만, 지난 여름 학교와 신촌 거리에서 내가 받았던 충격은 작지 않았다. 집에서나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허벅지가 드러난 짧은 반바지와 소매 없는 티셔츠, 빈쩍 치켜 올려 묶은 머리카 아예 올려버린





머리 스타일 등은 여름의 더위를 가셔버릴 듯한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도 좀처럼 몸을 드러내지 않았던 '한국적 여성상'에 대한 완전한 거부로까지 비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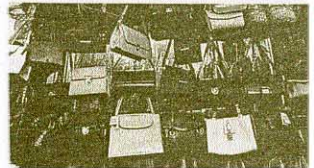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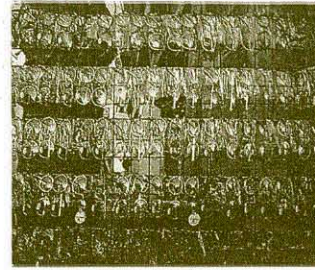
대답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대답하기도 하지만, 90년대 대학 강의실에는 정장 차림의 '신사·숙녀'와 요란한 귀고리나 팔찌 등의 거추장스런 악세서리가 많이 사라진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다. 정장 차림의 패션에 고수하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청바지 등 활동적인 바지에다 남학생들은 잠바와 콤비, 가디건을 주로 입는 것 같고 여학생들도 차마보다는 바지를 즐겨입는 것 같다.

80년대에는 이념 성향이 강한 대학 문화의 기수들이 보여 주었던 옷차림과 다른 한편에서는 고가의 정장과 요란한 악세서리로 치장한 패션이 공존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양분으로부터 대학가의 패션이 젊음과 활동성을 중시하는 간편한 복장으로 수렴되는 현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간편하고 생동감 있는 복장이 그들의 젊음을 보다 돋보이게 하여 단일한 대학생 집단이라는 공감대를 넓혀 주고 있기 때문이다.

남학생들의 옷차림도 색상이나 디자인이

매우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종전에는 여자들이나 걸치고 다녔을 것 같은 화려한 색깔의 남방이나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가디건도 그러려니와 여름에는 반바지와 샌들을 신은 남학생들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띈다. 그들에게 "집에서 자다 왔나", "다리에 털 좀 깎고 다녀라", "여자 다리보다 더 예쁘다"라는 식의 비난성 발언도 있기는 한 모양이지만, 대학 패션이 다양함과 간편함을 지향해 나가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패션에 둔감한 남학생들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듯하다. 또 머리 모양을 고정시키고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무스나 헤어로션을 바른 남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들로 미루어 보아 '남자란 그저 털털하고 수수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전통적인 남성관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80년대의 정치적 권위주의의 팽배는 대학생들을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급진적이고 체제 비판적으로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이념적 성향은 외래 문화, 특히 미국 문화에 대한 강한 거부로 이어졌고, 그것은 다른 한편에서 '우리 것'에 대한 명목적 집착으로까지 번져갔다. 80년대 캠퍼스에는 온종일 장구와 팽과리 소리가 깃들어 있었고 캠퍼스를 정치 구호와 투쟁으로 가득 메운 집회장에는 한복에



두루마기를 두른 남학생들과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모이는 곳에는 간혹 고무신을 신은 남학생도 보였고, 남녀할 것 없이 바지에 티셔츠 차림을 한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의 미국적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오기가 묻어나기도 했다.

이런 의미에서 고집스러운 정도의 전통 문화에 대한 집착이 90년대에 들어서 느슨해진 것도 변화의 한 측면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신 자본주의의 상업주의가 만들어 낸 소비 문화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버렸다. '주체'는 랩 음악의 박자에 맞추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대학생들의 외양에서 풍기는 '독특함' 속에는 자본주의적 상업 문화가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을 주는 남녀 학생들이 눈에 띄는데, 알고 보면 그들은 '또 하나의 장동건'이자 '또 하나의 손지창' 그리고 '또 하나의 최진실'로 재생산된 복제품들이었다. 그러한 복제품들의 범람은 대학생 패션의 '독특함' 속에 도사리고 있는 상품화된 자본주의의 단면인 획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교정이나 신촌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국의 게스(guess) 청바지는 바지 한 벌에 10만 원 가까이 하는데도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게스 청바지에 폴로(polo) 셔츠를 받쳐입은 복장을 '국민복'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비싸디 비싼 옷들을 너무나 많이 입어 '국민적 교복'이라고까지 부른다는 말이다. 지난 겨울에 유행했던 무스탕, 토스카나 등의 외부도 게스 청바지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의 기성 문화에 대한 거부의 공간으로서의 락 카페가 '출출 수 있는 음악'과 '섹시한 차림새'라는 소비적이고 상업적인 공간으로서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대학생들의 저항 이미지는 대량 생산되는 패션 문화—다분히 외래적이고 상업적인—속으로 편입되어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것은 90년대의 대학 문화의 지표와 지향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일 수 있다. 기성 문화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은 '대안적 무기'를 지니지 않았을 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제조업자의 품에 안기고야 말기 때문이다. 민주화라는 정치적 해방 공간 속에서 90년대의 대학은 나름대로의 대안을 갖고 소비적인 상업 문화에 대항하여야 하는 '문화 기지'로서의 임무를 새롭게 부여받고 있다. ◀